

## 일본의 양계업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산 란 계

#### 셀프 계란 비빔밥 대성황

후쿠오카(福岡)의 작은 가게에서 셀프 계란 비빔밥을 팔고 있는 주인에게 기술을 전수 받아 셀프 계란 비빔밥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西垣)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양계장에서 1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5ha의 논에서 쌀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밥, 계란과 장을 재료로 자가 요리를 통해 계란과 쌀을 판매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계란은 매일 매일 매진상태이고 쌀이 모자라 인근 농가나 영농조합에서 사다가 팔고 있는데, 맛의 비결은 바로 한 밥 300g에 계란은 원하는 수만큼 풀고 파와 김을 비빔밥에 얹어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식당과 다른 점이다(현대농업 9월호 발췌).

#### 계란을 섭취한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

지질영양학 등의 연구자 10명으로 구성된 「지질영양관계 의·약·보건학자 10인 위원회」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 된『생활습관병을 알자』의 내용수정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 요청서에 의하면 『혈액 중의 총콜레스테롤, 그중 LDL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동맥벽에 붙어 동맥이 딱딱해지므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인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피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주의할 것으로 계란 섭취는 1일 1개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내·외 최신의 연구 성과와 많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

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요청서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섭취는 장기적으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계란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대규모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대부분의 사람이 장수의 지표가 되어 있어 섭취 콜레스테롤량을 제한하는 것은 영양지도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관서양계 ISO 22000:2005 인증 취득

(주)관서양계는 본사와 제1성계농장GP센터, 제2성계농장GP센터 3개소에 각각 HACCP을 도입한 ISO 22000:2005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 회사는 (주)크레스트(クレスト) 그룹의 계란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4년 전에 설립되어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할 수 있는 계란을 배달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설립초기부터 HACCP 기법을 기본으로 한 조직·체제 만들어 「식품산업관련기업의 전문국제규격」의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는 「이번의 ISO취득을 계기로 소비자 여러분이 계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계란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전 사원이 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란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에스(工)통상 면역물질 이보트리 판매

(주)에스통상은 미국의 인프로사가 유청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액체단미사료 이보트리(イボトリ) 판매를 시작하여 닭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항생물질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성장촉진 작용이 있어 사용되고 있으나 약제의 내성균이 문제가 되어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가축에의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보트리의 성분은 사이토카인으로 분류되는 면역물질로 항생물질은 아니지만 항염증작용이 항생물질의 성장촉진효과를 대체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스통상은 약제의 효과를 농장현장에서 확인하여 일본 산란계, 육계, 종계 등의 양계부분에 한하여 판매권을 취득하였다. 이 회사의 전무(岡田)는 「염증이 발생하면 식욕이 저하되어 계란이나 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농장관리에서는 이보트리와 같은 유청물질을 이용하여 염증반응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용방법은 육계는 매일 투여, 산란계는 초생추의 경우 첫 1주일은 1,000수당 1cc를 매일 음수투여하고 이후 주일씩 체중의 증가에 따라 음수투여를 반복한다(계명신문 발췌).

### 사료용 쌀 생산추진

농림수산성은 7월 31일 양계문제간담회를 열어 2005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료용 쌀 생산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도 실행계획은 6항목으로 「1. 양계경영의 동향·경영 안정」은 (1)수요에 맞는 생산을 위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협력하에 수집·제공, (2)생산자단체의 협력을 얻어 지침작성의 기초가 되는 생산동향조사에 조사협력 추진, 「2. 국제화에 대응하여 얻어지는 생산·유통체제의 구축」은 (1)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안전운용(이상보전기금의 발동기준의 인하, 보전재원의 대부), (2)축산경영 생산성향상 지원자금대부사업의 대부규제철폐, 사양관리기준의 개선 등에 의한 닭의 생산성향상 추진, 에코피드, DDGS, 사료용 쌀 등 미이용·저이용 자원의 활용, (3)사료가격 폭등 등 축산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대한 이해, (4)GP센터, 닭고기 처리시설의 정비 등의 계속 추진 등, 「3. 안전·신뢰 확보」는 (1)생산·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험의 활용」은 (1)계속해서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 만들기 노력의 실시, (2)소규모사육자, 애완사육자 등의 사양관리 철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등, 「5. 질병 발생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은 농장의 HACCP 방식에 의한 사양위생관리 도입 등을 지도하는 농장지도원을 양성하고 인증기준을 보급, 「6.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은 (1)계속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퇴비를 생산하면서 부산물 이용을 추진하는 모델 만들기 추진, (2)미이용자원의 유효활용에 대해서는 사료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창설, 활용사례의 수집이나 정보제공 등에 의한 에코피드의 생산·이용 확대 추진 등을 계획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양계**